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2호 [2012. 12] : 1~22

『비평가 *El Criticón*』에서 드러나는 책의 독서 과정

권 미 선*
(Kwon, Mi-Sun)

<Abstract>

Life as a Process of Reading in the *Criticón*

The Criticón of Baltasar Gracián, which is an allegory of lif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literary works on the Spanish Golden Age. It is a book about the world in allegorical form, which can decribe, decode and interpret the characters' lives as a process of reading the book. Here the book does not characterize a utopian ideal. Only it is the factual descrip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rld and the reader handles the same task of interpretation of the text as the life itself. In *The Criticón*, the world is disguised to be perceived through parables or allegories. Thus, the phrases, the characters represented by Andrenio and Critilio and the rest of the world constitute a duality, a perfect manifestation of reproduction and the composition of reality. In this way, the work becomes a symbolic reproduction of reality. It does not intend to be an exact replica of the world, but expands its cognitive horizon and opens the way to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reader. The author tries to shape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
E-mail: mskwon@khu.ac.kr

the existence of the book and the life in which the role of the reader gets more important. Thus, in *The Criticón*, we can find the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or, the reader, the characters and time that constitute the work as a process of reading the book in the modern sense.

[Key Word: Allegory/ Reader/ Reality/ Symbolic Reproduction]
[주제어: 알레고리/ 독자/ 현실/ 상징적인 재현]

Ⅰ. 들어가는 글

스페인 문학에서 알레고리 소설, 철학 소설로 평가받는 『비평가*El Criticón*』는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비평가』의 저자인 발따사르 그라시안(Baltasar Gracián, 1601-1658)은 과거 전통과 근대 사상, 그리스·로마 시대의 사상가와 문인들, 근대 이탈리아와 유럽의 혁신적인 사상을 접목해,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과 세계를 얘기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그라시안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세계는 이상적인 인간의 이미지도 아니고 유토피아적인 세계도 아니다. 단지 인간이 어떻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고, 세계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며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비전을 얘기하며, 알레고리를 통해 인간이 속한 세계의 불가해한 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평가』에서는 이러한 인간 세계의 불가해한 면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주체의 문제와 자아형성 과정을 다룬다. 그리고 『비평가』의 주체는

위기에 처한 주체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내면 성찰을 통해 진화하는 주체이며, 그라시안은 이러한 자아형성 과정을 독자의 독서 과정과 접목시켜 현대적인 색채를 가미했다. 그라시안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알레고리의 전통과 화자와 독자, 등장인물, 시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새롭고도 현대적인 개념을 도입해 인간 삶의 과정과 책의 독서과정을 비교·언급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비평가』의 전반적인 구조

알레고리로 가득한 『비평가』의 난해한 내용과 달리, 전반적인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조난을 당한 끄리띨리오(Critilio)가 산타 엘레나 섬(isla de Santa Elena)에 도착해, 그 섬의 유일한 생존자인 안드레니오(Andrenio)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끄리띨리오가 말할 줄도 모르는 안드레니오에게 말을 가르쳐준 후 그들은 서로 살아온 삶을 얘기한다. 안드레니오는 자신이 인간과 문명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짐승들 사이에서 성장한 과거를 얘기하고, 끄리띨리오는 사랑으로 인해 투옥되었다가 유럽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파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얘기한다. 섬 근처를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어 스페인에 돌아온 후 안드레니오가 끄리띨리오와 그의 사랑하는 여인 펠리신다(Felisinda)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임이 밝혀지고, 그들은 함께 펠리신다를 찾기 위해 세계를 떠도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종착지인 불멸의 섬(isla de inmortalidad)에 도착하기 전 로마에 들르게 되며, 그곳에서 이 삶에는 행복(Felicinda)이 존재하지 않으며, 펠리신다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작품은 모두 3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연령에

해당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단계로 나눠져 전개된다. 1권은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인간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얘기하며,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나긴 여행을 떠나면서 전개된다. 문명 세계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며 사회성이 부족한 안드레니오는 인생 초년기에 줄곧 갇혀 지냈던 동굴에서 나오는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넋을 잃고 감탄하지만 곧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1] 1권은 안드레니오가 퇴락일로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되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 기본 품성에 대해 언급한다. 1권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속임으로 가득 차 왜곡되어 있으며, 속임과 거짓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 속임이 세계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안드레니오는 거짓과 아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한편 끄리띨리오는 안드레니오를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하고자 노력한다. 그런 과정에서 속임(engaño)과 반대의 개념인 환멸(desengaño)은 청춘을 지배하는 잘못되고 그릇된 시각에 대한 답을 고의적으로 숨기게 되며, 그렇게 노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룰 환멸의 과정이 조금씩 시작된다.

그라시안은 도입부분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다룬 후 인간의 간교함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도덕을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1권은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다.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는 펠리신다(행복)를 찾아 길을 떠나며,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의 빛이자 목표가 된다.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 속에 희망찬 모습을 보여준다.

가을 단계에 해당하는 2권에서는 인간의 덕목들이 나열된다. 안드레니오는 아직 젊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역사

1) Margarita Ucelay, "Corte y teatro de Falimundo en *El Criticón*", *Hispanic Review*, 145.

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알아간다. 1권이 인간에 대한 선천적이고 전반적인 성품과 특징들을 다뤘다면, 2권은 구체적인 인간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배경 속에서 인간을 분석한다. 영광스러운 과거와 역사가 비참한 현재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런 역사의식은 인간 개인의 형성뿐만 아니라 작품 내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스페인의 비판을 위해서도 표현된다.

그리고 겨울의 단계에 해당하는 3권의 '무의 동굴la cueva de la Nada'에서는 무(無, nada)[2]와 죽음 이후의 완벽한 소멸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시간의 바퀴la rueda del Tiempo'에서 영원한 반복의 개념과 함께 문체가 바뀌어, 우수에 찬 그리움이 소극적인 비관주의로 대체된다. 그들은 '불멸의 섬'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들러 이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3권에서는 앞 권들에 비해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며, 환멸이 절정을 이룬다. 펠리신다를 찾고자 하는 여행의 목표가 허물어진 순간 현실의 이미지들도 한 순간에 해체된다. 여행 내내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를 이어주고,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었던 목표가 허물어져버린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허상에 불과했으며,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는 목표를 이루는 대신, 크나큰 무와 맞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무와 맞서게 된 순간, 즉 그들 여행의 원동력이 꺼진 순간이 환멸이 완성된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은 잘못되고 조작된 진리가 가면을 벗은 현실의 실제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드러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인간 자체의 존재로, 환멸을 경험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무의 동굴'과 만나면서 세상에 대한 위조되고 거짓된 이미지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2) 권미선(2012), 「『비평가 *El Criticón*』: 인간 삶에 대한 현대적인 철학」, 스페인어문학회, pp.266-271.

이러한 해체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와 맞서고, 무의 부정적인 면과 맞선 다음에야 긍정적인 목표, 새로운 목표, '불멸의 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다. 『비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역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큰 인물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불멸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Ⅲ. 『비평가』 : 책의 독서 과정

3-1. '화자'와 '독자'에 대한 인식

『비평가』는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계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 보내는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작품의 의도와 목적, 집필 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작품이 알레고리를 통한 새로운 시도이면서도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실용철학이라고 피력한다.[3] 그라시안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중세 철학의 알레고리를 접목해 철학적인 내용에 문학적인 토대를 결합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각박한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의 삶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묘사하는 실용 철학을 전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사전달을 위한 수단 이상의 언어에 대한 기능과 사상의 표현 방법에 대한 우려도 드러낸다.

---

3) Baltasar Gracián(1985), *El Criticón*. Barcelona: Planeta, p.5. 앞으로의 작품 인용은 페이지 수로만 표기하겠음.

알레고리는 “다른 식으로, 구상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동사 ‘allegorem’에서 유래하며, “추상적인 개념 혹은 분명한 사고의 흐름을 구상적으로 생생하게 제시하는 것”[4]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대 이래 중세를 거치면서 알레고리는 예술과 삶을 매개하는 범주로 활용되어 왔고, 예술의 해석에도 다소 도식적인 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라시안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알레고리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언어에 대한 성찰을 통한 현대적인 색채를 가미해 언어의 비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대 포스트모던 철학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주체와 무(nada), 시간, 존재의 개념과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인간 삶의 과정이 책의 독서과정과 비슷하게 전개되면서 당시 알레고리가 가득하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다른 작품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부분에서 작가는 독자에게 직접 향하며 “판단력이 훌륭한 악의 없는 독자여, 당신 삶의 과정이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는 이 궁정철학을 오늘 당신에게 바칩니다.”(5)라고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역할이 기존 작품에서의 관찰자의 역할 그 이상임을 암시한다. 독자는 이미 처음부터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 속의 내용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독자는 작품 속 두 주인공과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며, 작품 내에서 장으로 표기되는 각 끄리시(crisi)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얘기할 때면 등장인물과 독자를 함께 언급한다.

> 여기서 현명한 여왕은 ‘야비함’이 얼마나 자신의 크나큰 적인지

4) M. Romera-Navarro(1941), “Las alegorías del *Criticón*”, *Hispanic Review*, pp.151-175.

> 알게 되었다. 여왕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권력자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책략으로 그 엄청난 힘을 물리치고자 했다. 그토록 치사한 망나니를 그럴싸하게 물리친 방법과 그 야비한 무리에서 벗어나는데 사용된 훌륭한 책략을, 독자는 다음 끄리시에서 읽을 수 있다(116).
>
> 끄리띨로는 모든 이들의 안 좋은 결말을 보고 있었다. 몇 세기와도 같은 하루가 끝날 때 즈음, 그는 가시가 돋친 꽃들이 피어있는 창가로 모습을 드러내는 안드레니오를 보았다. 끄리띨로는 안드레니오의 몰락을 두려워하며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 안드레니오를 부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안드레니오에게 환멸을 환기시키며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어디로 내려갔는지는 다음 끄리시에서 보게 될 것이다(131).

주인공인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와 마찬가지로 독자 역시 단숨에 세상의 이치를 터득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등장인물들과 함께 줄곧 여행에 동참하게 된다. 그것은 기나긴 삶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독서 과정이며, 삶과 같은 독서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결말에 이르게 된다. 독자가 책과 인물들의 삶에 대한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고, 해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이다. 독자는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의 여행에 동행하면서 두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책을 해독하는 것과 동시에,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즉 자기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을 꿰뚫어봐야 한다. 이렇게 『비평가』에서는 책과 세상이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되며, 등장인물들이 불멸의 섬에 도착하기 위해 인생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하듯, 독자는 알레고리로 가득한 책을 읽고 해독해야 한다. 그렇게 『비평가』는 인생에 대한 알레고리가 되고, 알레고리 형태로 되어있는 세상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독

자를 드러낸 책이 되면서 작품 전체는 현실에 대한 상징적인 재현이 된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지평을 넓혀 독자의 주관적인 이해를 유도하는 상징적인 재현이다.

한편 작품의 화자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작품의 전개에 거의 개입하지 않다가, 각 단원 말에서 앞으로 계속될 내용을 언급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화자는 작품 전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두 주인공을 예정된 운명으로 이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어와 함께 세상에 대한 비전을 중재하며 서술하는 목소리에 머문다. 화자는 간단한 도입 부분을 마친 후 곧 두 주인공에게 역할을 넘겨주고 부차적인 역할로 물러난다. 등장인물들이 내용 전개를 위해 의인화된 덕목들이나 신화들과 함께 등장하면, 화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과 보편적인 성격을 소개하는 데 필요한 일화나 서술 등을 도입하지만 내용 전개에 직접 개입해 도덕적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는다. 도덕적인 내용은 상징들 속에 교묘하게 녹여서 드러나게 하면서, 작품 전체는 현실에 대한 상징적인 재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인식론적 지평을 확장하고 독자의 주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 재현이다.

3-2. 등장인물에 대한 인식

그라시안의 등장인물들에서는 기지(ingenio)와 판단력(juicio)[5]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지는 분명한 지적 능력이기는 하지만 판단력이 없이

5) Roberto Mansberger Amorós(1995/1997), "*El Quijote* y *El Criticón* como antiquitote a la luz de la doctrina del juicio y del ingenio. Apuntes para una interpretación", *Anales cervantinos,* 33, p.337. 중세에는 자연과 예술을 서로 대립되는 이중성으로 보았으며, 『비평가』에서 이러한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Naturaleza-ingenio-invención-locura-imprudfencia/Arte-juicio-disposición- discreción-prudencia로 분리한다.

는 각박한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판단력은 비판적이고 신중하지만 창의성과 기지의 신선함을 필요로 한다. 판단력은 윤리학과 도덕 철학에 해당하며 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크게 보면, 그라시안의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이며, 특히 초기의 작품들이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라시안의 저서들로는 『영웅*Héroe*』(1637), 『정치가 돈 페르난도*El político don Fernando*』(1640), 『신중한 사람*El Discreto*』(1646), 『수신규범과 덕행의 기술*El Oráculo Manual y Arte de Prudencia*』(1647), 『기지, 재기의 기술*Agudeza y Arte de Ingenio*』(1642), 『성체배령*El Comulgatorio*』(1655), 『비평가』(1651, 1653, 1657)가 있다. 그러나 후반기의 작품인 『기지, 재기의 기술』과 『비평가』에서 판단력은 실용주의적인 면이 덜 부각되면서 보다 비판적이 된다. 초기의 작품들에서 그라시안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면, 후반기의 작품에서는 지식의 탐색과 깨달음의 지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기 작품에서 판단력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수단이었다면 후반기 작품에서는 인식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성숙한 판단력으로 세상의 요구를 알고 있고, 영웅이 되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목표가 이룰 수 없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6]

끄리띨리오는 감옥에 투옥된 후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배의 선장에 의해 바다로 내던져진 이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 삶이 그에게 세속적인 성공의 불가능성을 가르쳐주었으며, 그라시안 역시 후반기 작품에서는 초창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와 등장인물 모두 실용적인 가치에서 행복이나 지식, 불멸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판단력은 시간이 흘러 얻게 되는 비

6) M. Romera-Navarro(1937), "Evolución de la crítica sobre *El Criticón*", *Hispanic Review*, pp.147-149.

판력으로 변모된 것이다. 세상에 들어갈 때는 속임을 얻고, 나올 때는 깨달음을 얻는 가치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판단력은 인간 존재에서 필수적이 된다. 인간이 신성한 질서를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거짓과 진실, 속임과 환멸을 구분하기 위해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판단력은 성공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는 인간의 양면성을 상징하며 둘이 함께 완벽한 인간의 자아를 나타낸다. '나'의 두 가지 근본적인 모습들이며 두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뤄 완벽한 인간이, 즉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즉 '주체'의 개념이 그라시안 철학의 중심 내용으로, 진정한 자아의 구축이 『비평가』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비평가』에서 중심 테마인 주체는 위기에 처한 주체를 정의한다. 도전을 의미하는 속임수 가득한 세상이 존재하고, 주체가 그것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인간은 여행을 통해 견고해진다. 자신의 지적 능력과 복잡함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내면 성찰을 통해, 세상과의 대화를 통해 진화하는 주체이다. 주체는 자기가 존재하는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그것은 그에게 형벌도 되지만 구원의 가능성도 된다.

『비평가』는 인간 존재의 문제와 함께 자아형성 과정을 다룬다. 때문에 『비평가』에서 성공을 거둔 인간은 초기작인 『영웅』에서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 성찰할 줄 아는 현명한 인간, 즉 자신의 진정한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환상을 접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능성을 깨달은 인간이다. 그리고 자아의 실현은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이뤄지는 개인적이고 더딘 과

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작가가 아닌 독자의 몫이듯, 독자가 자기만의 개인적인 독서를 끝낸 후에만 자신이 구축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책은 해답을 주지 않고 가야할 길만을 제시하며, 두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독자 역시 이 길을 따라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은 여행 중 조력자와 훼방꾼들을 무수히 만나게 된다. 그들을 도와주려는 인물들도 있고, 자기네 목적에 따라 나쁜 길로 인도하려는 인물들도 있다. 그렇게 여행 중에 만나는 인물들은 인간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상징하며, 선악을 구분해 진정으로 자기네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인물들의 도움을 수락하는 것은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의 몫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과 악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은 텍스트 바깥의 현실 삶에서 사는 독자의 몫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품 내에서 점차적인 동력을 보강해 긴장 요소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은 작가의 몫이다. 삶은 극복해야할 시험들과 풀어야할 수수께끼들로 가득하며, 책 역시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3-3. '시간'의 의미와 역할: '불멸'과 '구원'

『비평가』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된다. 펠리페 4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작품의 진실성과 현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한다. 또한 그 시대의 경제 위기와 사회 변화가 작품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비평가』에서는 몰락과 가치의 결여에 영향을 받은 인간과 세상의 비전이 그려져 있다. 때문에 질서를 재확립하고, 과거의 덕목과 영웅적인 가치들을 다시 세우고, 개인의 균형을 찾는 것은 각자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의 암호를 푸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인 인식은 작품의 줄거리와 현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직선적인 시간은 아니다. 안드레니오의 교육과 연관된 신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과거가 현재에서도 계속 현실화되는 것이다. 복잡하고 탄력적인 시간의 개념이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은 과거를 의식하는 능동적인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시각이나 두려움을 구축한다. 영광스러운 과거는 현재에서 이상형으로 재탄생되며, 현재에 처한 암울하고 슬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해 과거의 영웅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쳤듯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라시안의 초창기 작품들은 구체적인 규범들과 따라야할 모델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 작가는 등장인물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독자에게도 요구한다. 세상의 암호를 해석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가 환상적이고 덧없다는 인식과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막을 꿰뚫어보는 것은 현명한 사람, 즉 현명한 독자의 몫인 것이다. 덕망 높고 현명한 삶은 불멸의 섬에 입성해 상을 받게 되고, 자아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사라져 무의 동굴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삶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획득한 순간, 바로 깨달음을 통한 앎을 얻은 순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을 때는 post mortem이다. 즉, 사후 세상으로 건너와 영원의 저택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이다.

역사적인 시간(tiempo histórico)은 작품의 배경이지만 인간의 공통된 정체성이고 이전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의 결합이기도 하다. 지난 시간들을 단순히 축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현재에 영원히 재생산되는 것이다. 연대기적인 시간(tiempo cronólogico)

은 작품의 줄거리 전개상 결정적이고 확실한 서술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중심인물들의 교육 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간대에는 안드레니오와 끄리떨리오가 만나기 전의 삶과 시간에 대한 회상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회상은 서술의 차원에서 설명적이고 해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는 명상적이고 사고 성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줄거리는 두 등장인물들이 거치게 되는 인지적인 과정과 연대기적인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작품의 구성은 인지적인 깨달음이 즉흥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반(反)하는 과정과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안드레니오와 끄리떨리오는 때로 연대기적인 배열을 뛰어넘게 되고, 시간은 서술적인 기능 이상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작품 결말 부분에 가면 시간은 연대기를 넘어선 복잡하고 탄력적인 실체가 된다.

끄리떨리오와 안드레니오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지나는 길에 그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인물들과 개념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 두 여행객은 연대기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시간(tiempo universal)으로 접어들며, 그렇게 시간은 두 개의 시간으로 분리된다. 줄거리의 전개에 필요한 연대기적인 시간과 시간을 초월한 철학적인 성찰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인 시간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시간에서 작가는 세상의 비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끄리떨리오와 안드레니오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관찰자의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그들은 느끼고 경험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고 배울 뿐이다. 그들의 행동반경은 사건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대기적인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보편적인 시간은 그들이 행동하는 무대가 아니다. 그 시간대에서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관찰자에 불과하며, 자기네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그들은 행동할 수 없지만 보편적인 시간은 개인적인 계획에 유용하고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경험과 지식을 그들에게 안겨준다. 보편적인 시간에서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는 단순히 관찰하고 배우게 되며, 그들에게는 세상의 진짜 나쁜 얼굴이 보여진다.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판단력이 있고, 눈치가 빠른 끄리띠로는 안드레니오를 도와 자기네가 보고 있는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얘야,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으니 어떠니?" 끄리띨로가 물었다. "세상의 이치와 내가 너에게 말한 내용과 많이 다르지? 이곳이 어떤지 잘 보아 두거라. 그리고 시작이 이 정도니, 그런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종말이 어떨지 두고 보거라! 네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적들 사이에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네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저 잔인한 첫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한다. 끝까지 칭찬해서도 안 되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해라. 너는 저 첫 번째 여자 폭군이 우리의 나쁜 버릇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이 아이를 사로잡아, 이성을 막고 계속 밀고나가 어린 시절을 장악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 자식을 울리지 않기 위해 해달라는 대로 모두 해주며 들어주기 때문이지. 아이가 하자는 대로 모두 내버려두고, 늘 자기 고집대로 하게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환멸의 어머니이자 빛의 여왕인 이성이 동료인 미덕과 함께 찾아왔을 때면 아이들은 이미 버릇이 망가져 행실이 나빠진 뒤이고 많은 아이는 이미 손 쓸 수도 없게 되지. 아이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것은 매우 힘들어지고 미덕이 확실히 존재하는 높은 곳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것도 매우 힘들게 되지(172-173).

보편적인 사건들의 예시를 통해 그라시안은 일반 세상의 현 상황과

개인의 위기를 구체적인 경우로 탈바꿈시켜, 사물들의 진정한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가르쳐주게 된다. 끄리떨리오는 여행에서 경험이 미숙하고 부주의한 안드레니오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행은 안드레니오에게 깨우침을 주고 학식을 안겨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니오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판단력은 인간이 겉모습에 현혹되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끄리떨리오는 일어난 사건들을 지식으로 탈바꿈시켜주기 위해 사건들을 진단하며, 그렇게 안드레니오와 끄리떨리오는 갈수록 현명해진다. 그들은 자기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는 하지만 자기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행동으로 개입하지 않고 단지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관찰만 할 뿐이다.

끄리떨리오와 안드레니오는 관찰하기 위해 독자의 곁에 머물게 되며, 세상의 진정한 상태가 밝혀지게 되면 그들은 인지적인 과정에서 인간 교육에 결정적인 환멸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작품은 줄거리를 위한 틀을 뛰어넘어 문학적 현실과 텍스트 외적 현실 사이의 경계를 지워준다.

이렇게 시간은 서술적인 흐름과 철학적인 흐름 사이에 텍스트를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픽션의 범위를 넘어서, 그 작품이 끄리떨리오와 안드레니오의 삶이 아니라 독자 자신을 위한 '인생서'라는 것을 독자에게 이해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독자가 텍스트의 암호를 풀고 해석해 텍스트의 이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독자를 직접 맞이해 그들 옆에 두기 때문이다. 안드레니오와 끄리떨리오는 작품의 등장인물에 머물고, 독자가 『비평서』에서 묘사된 자기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편적인 차원에

서 깨달음이 이뤄지며,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진실이 밝혀진다. 등장인물들과 독자가 동시에 세상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보편적인 차원의 사건들과 관찰 덕분에 얻은 깨달음은 그들이 그곳까지 도착하기 위해 선택한 길 덕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알레고리가 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아실현을 이루고 세상의 진정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환멸을 예시하고 모방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알레고리가 인간의 상황을 모방하며, 독자가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의 삶 또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독자가 들고 있는 삶에 대한 책이 독자가 가야할 길을 예로 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알레고리의 진실은 세상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과 똑같이 이뤄진다. 즉, 알레고리로 가득한 작품의 해독과 해석의 기나긴 과정 끝에 밝혀지는 것이다.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는 여행 중 세상과 인간이 처한 실제 상황을 밝히고,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폭로된 진실은 시간을 벗어난 것들로, 두 인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상황과 삶,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진실들은 연대기적인 시간을 초월해 삶 자체의 다양한 면을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며, 거기서부터 불멸의 섬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앎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불멸의 섬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모든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삶은 또한 불멸이고, 바로 그 때문에 불멸의 섬에 입성하면서, 영원의 저택의 문에 들어서면서 이야기는 절정에 이른다. 이 삶의 최고 목표는 구원과 불멸이며, 그것은 인간만이, 즉 현명하고 기지있고 이성적인 삶의 결과로 자아를 실현한 인간만이 성취할

수 있다.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서술의 연대기적인 시간은 끝이 나지만 독자의 삶에서는 계속된다. 두 인물들이 가리킨 길을 계속 따르라는 암시이기도 한 열린 결말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독자의 삶을 겨냥한다.

>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들이 그곳에서 본 가장 중요한 것은 고귀한 미덕과 영웅적인 가치의 방향을 본받아 명성의 극장과 존경의 왕좌, 그리고 불멸의 중심에 이르는 것이다(603).

안드레니오와 끄리띨리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연대기적인 시간은 끝이 나지만 그 이야기의 결말은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다. 여행은 독자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불멸의 섬이 독자를 처음으로, 안드레니오가 자란 산타 엘레나 섬인 출발점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이제 작품의 여행과 비슷한 개인 수양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는 등장인물들과 함께, 등장인물들에게서 배웠지만 독자의 개인적인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개인적인 것이다.

시작과 결말 모두 섬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불멸의 섬의 이미지로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주인공이 된 독자는 처음의 산타 엘레나 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여행은 "시간의 바퀴"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기 수양을 위해 무한대로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을 향해 나선형 모양으로 계속 될 수 있다. 『비평서』는 인생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여행이 끝에 이르렀어도 책은 끝나지 않는다.

Ⅳ. 맺으며

『비평가』는 세상에 대한 비평서이지만, 또한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 작가 자신의 구원이자 불멸을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등장인물들은 역사적인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멸로 이끈 작가 덕분에 문학적인 구원을 얻게 되며, 작가는 그 등장인물들 덕분에 개인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 인간에게는 예술을 통한 불멸과 구원이 해결책이 되지만, 그것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적대적이고 속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작품의 중심인물들에서 어느 정도 낙관주의도 엿볼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되는 순간 미래의 인간을 위한 예로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통한 앎은 가장 높은 경지의 앎이다. 세상의 실체를, 그것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앎의 습득으로도 자아실현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 대한 진실은 개인과 세상의 만남의 결과로 드러난다. 이것은 세상의 겉모습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알레고리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달려있다. 때문에 독자의 역할은 주인공들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해석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라시안이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듯이 독자의 삶이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작품과 세상의 관계는 독자에게 달려있다. 작품을 자신의 세상에 개입시키는 것은 독자의 몫이며, 독자는 읽는 매 순간 새롭게 작품을 구성해나가는 장본인이 되기도 한다.

『비평가』는 끄리띨리오와 안드레니오의 삶에 대한 작품이자, 독자의 독서 과정이기도 하다. 독자의 삶은 등장인물들의 삶과 평행하는 현실이며, 작품에서 그려진 인물들은 독자/관찰자로 대체될 수 있다. 그라시안

은 현실에 대한 경험을 묘사하려 한 게 아니라 그러한 묘사 속에서 현실을 우러나도록 한 것이다. 묘사된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라시안이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비평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객관적인 실체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언어가 문학적 현실의 겉모습이며, 문학적 현실이 쓴 가면인 것이다. 언어는 현실의 표현을 위해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작가에게 객관적인 현실이 다가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작품은 독자에게 해석해야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작가와 세상의 관계의 결과처럼, 텍스트와 독자의 만남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그라시안의 현실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관찰과 함께 더욱 풍성해진다.

『비평서』는 세상에 대한 책이다. 작가가 해석한 세상이며, 때문에 작가 자신의 현실, 즉 문학적 현실을 구축한다. 텍스트외적인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과 생각에 대한 묘사이다. 바로크 시대에는 예술이 모방이 아닌 창작(invención)의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작가는 단순히 자연의 대변인이 아니라, 해석하는 창작자이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작가의 작품은 유일한 객관적인 척도로서 언어를 가지고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문헌

Kwon, Mi-Sun 권 미선(2012), 『"Bipyeongga: ingan sam e daehan hyeondaejekin cheolhak" 비평가 *El Criticón*』: 인간 삶에 대한 현대적인 철학, Spainemunhakjeoi 스페인어문학회: 254-274.

Spinoza, Baruch de 스피노자, 베네딕투스 데 (2010), "Descartes cheolhak

eui wonri"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chek sesang 책세상.

Lee, Jaekwang 이재광(2009), 'Gundae cheolhak eui balsaeng e kwan han yeongu – Descartes wa Kant cheolhak esu jaki euisik kwa sin kwanggye eui byuncheon 근대 철학의 발생에 관한 연구 –데카르트와 칸트 철학에서 '자기 의식'과 '신' 관계의 변천', Cheolhak · Sansang · Munhwa 철학 · 사상 · 문화, Vol.,: pp.147–183.

Yun, Geumha 윤금자(2011), 'Descartes eui cogito e daehan Heidegger eui haesuk'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Cheolhaktamgy 철학탐구, Vol.30, pp.176–206.

Aranguaren, José Luis L.(1997), *Obras Completas*, Vol.6, Estudios literarios y autobiográficos, Madrid: Editorial Trotta.

Bouillier, Victor(1944), "Baltasar Gracián y Nietzsche", *Obras Completas*, ed. de E. Correa Calderón, Madrid: Aguilar.

Coster, Adolphe(1947), *Baltasar Gracián*, trad. de Ricardo del Arco, Zaragoza: Institución "Fernando el Católico".

García Casanova, Juan Francisco(2003), *El mundo de Baltasar Gracián. Filosofía y Literatura en el Barroco*, Granada: Universidad de Granada.

Gracián, Baltasar(1985), *El Criticón*, ed. de Antonio Prieto, Barcelona: Planeta.

Mansberger Amorós, Roberto(1995/1997), "*El Quijote* y *El Criticón* como antiquitote a la luz de la doctrina del juicio y del ingetnio. Apuntes para una interpretación", *Anales cervantinos*, 33, p.337.

Martínez, Ramón Natal(2007), "Aproximación antropológica a El Criticón, de Gracián", *Religión y Cultura*: pp.745–802.

McGhee, Dorothy M(1937). "Voltaire's Cándide and Gracián's El Criticón",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Baltimore, LI, pp.778-784.

Pujante Sanchez, José David(1988-89), "Reconsideración del concepto nietzscheano de tragedia a la luz de la nueva psicocritica", E.L.U.A, 5: pp.29-36.

Romera-Navarro, M.(1937), "Evolución de la crítica sobre *El Criticón*", *Hispanic Review*, Vol.5, No.2, pp.140-150.

_____(1941), "Las alegorías del *Criticón*", *Hispanic Review*, Vol.9, No.1, pp.151-175.

Ucelay, Margarita(1981), "Corte y teatro de Falimundo en El Criticón", Hispanic Review, Vol.49, No.2, pp.143-161.

▌논문투고일자: 2012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자: 2012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30일